지역 소식통

김제경찰서, 연말연시 특별방범대책 추진

김제경찰서(서장 백형석)는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범죄가 우려되고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제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 특별방범기간 주요 범죄 발생 장소 및 범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계획 수립, 자위방범 체계 마련 촉구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협력치안 강화를 하기로 했다.

또한 김제경찰서 특수시책인 온동네한바퀴 지역안전순찰을 병행하여 인파밀집 예상지역, 현금다액 취급업소 등은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이 거점순찰 장소로 지정하고, 상시 경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은 CCTV 관제 범죄 확대 등 조치를 취하는 등 가시적 경찰 활동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가족 송년회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4일 가족송년회 행사를 김제시 가족센터(센터장 장덕상)주관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다문화가족과 김제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는 송년회는 식전행사로 지난 10월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세계춤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마가르' 가문의 전통춤에 이어 꿈나무 태권도공연, 한춤, 기타공연, 가족발표 4팀, 검무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본식에 앞서 다문화가정의 중학교 입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가족센터에서 지평선축제 다문화 부스 운영과 어울림장터 운영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더욱 뜻깊은 전달식이 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가족송년회는 한 해동안 센터서 진행된 프로그램 공연발표와 가족장기자랑으로 다문화가족 및 시민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김제=곽노태기자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김제시,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어려운 여건 속 … 예산 작년 대비 221억 증가 '성과'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어려운 재정여건과 비상시국 영향에도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025년 국가예산 1조 334억원(국가 직접사업 5,516억원, 시 직접사업 4,818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국가예산 1조 113억원 대비 221억(2.1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재정 여건과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이룩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시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정성주 김제시장을 주축으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기재부 심의 단계별 체계적인 확보 활동과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 시의원, 정치권 등과 원팀을 이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주요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 4억원 (총사업비 409억원), △ 지역활력타운"힐스타운 시압"조성사업 10억원 (총사업비 415억원), △ 만경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9억원 (총사업비 389억원), △ 당월 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3억원 (총사업비 120억원) 등이 있다.

주요 국가 직접사업은 △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1,382억원 (총사업비 24,476억원), △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240억원 (총사업비 1,916억원), △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1차) 68억원 (총사업비 481억원), △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 구축사업 22억원 (총사업비 267억원), △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5억원 (총사업비 165억원) 등이 반영됐다.

주요 시 직접사업(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106억원 (총사업비 1,092억원), △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3억원 (총사업비 150억원), △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7억원 (총사업비 253억원) 등이 있고,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65억원 (총사업비 298억원), △ 지평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2억원 (총사업비 172억원), △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21억원 (총사업비 115억원) 등이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에 힘을 모아주신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미래성장과 동력원을 확보하여 김제 발전 100년의 초석을 다지도록 혼신의 대장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2025년 정부예산 집행 즉시 추경 예산 편성 방침에 맞춰 과소·미반영된 국가사업이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탄핵안 가결 긴급간부회의 개최

완주군수 "비상근무 태세로 민생안정 · 재난안전 관리 철저" 당부

유희태 완주군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를 주문했다.

16일 유 군수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라"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민생경제가 이번 사태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연말연시 계획된 축제와 행사의 정상 개최를 통해 지역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설 대비 취약시설 점검, 취약계층 보호활동 지속 전개, 화재예방 활동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대비 방역수칙 홍보 등 동절기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고3 특강 "꿈의 크기를 키워라"

한별고 찾아… 사회 첫발 내딛는 학생들 응원

유희태 완주군수가 삼례읍의 한별고를 찾아 '꿈의 크기를 키워라'는 주제로 특강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16일 유 군수는 한별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완주군정과 본인의 철학을 소개하며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유 군수는 "자신의 무대를 어항이라 생각하지 않고, 강물이라 생각하고 꿈의 크기를 키운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며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의 면적이 전주시의 4배, 서울시의 1.35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은 면적이 넓은 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완주군에 일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주민들의 민원도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는 기회로 생각하도록 역발상해 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도 장기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매사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개인적으로도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군수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능이 끝난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꿔왔던 것들에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라"고 조언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전주 통합관련, 행정 · 농촌분야 검증

완주군발전위, 제5회 회의 개최 … 분야별 쟁점 사항 확인 등

완주군 발전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그간 거론 됐던 행정·농촌분야 쟁점사항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13일 제5회 발전위원회를 열었다.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분야와 주민 대표성 관련 쟁점을 다뤘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상 행정구는 3개 설치가 가능하지만, 완주만의 독자적 행정구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밝혔다.

아울러, 각종 농어촌 혜택들이 결부돼 있는 통합시의 읍·면 행정체제 유지는 관련법 제정 및 청주·창원·여수시 등 통합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통합이 되더라도 읍·면 유지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의원 수 축소에 의한 군지역 주민 대변기능 약화 문제로 거론된 쟁점사항에 대해 다뤘다.

현재 지역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완주군 약 7,000명, 전주시 약 1만 5,000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이 반영돼야하므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확정시 완주군 지역 의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업 분야는 농어촌 특례사항 및 농업 예산이 쟁점사항으로 다뤄졌고, 통합이 되더라도 읍·면이 존속 가능하면 기존 농어촌 특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생산기반, 전주시는 도시형 농업정책에 집중하는 차이점으로 농가별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완주군이 전주시에 비해 2배 정도 많아 농가당 직접지원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찬성단체 성도경 대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4개구 설치도 가능하고, 농촌분야의 우려사항은 통합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반대단체 정완철 대표는 법적으로 행정구는 3개까지 설치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시민안전 보험 운영…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김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절차는 따로 없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김제시가 부담하여 시민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겨울철 폭설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가입된 보험사(KB손해보험 1522-3556)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